

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4. ESG 투자 전망

“침체기 거쳐 올해 회복할 것... 200개 이상 금융기관, 석탄 배제 투자 전략 시행”

2023년 글로벌 ESG 투자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투자리서치기업 모닝스타는 ESG 펀드시장에서 4분기 연속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40억달러(약 18조3428억원)가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고금리, 정치적 압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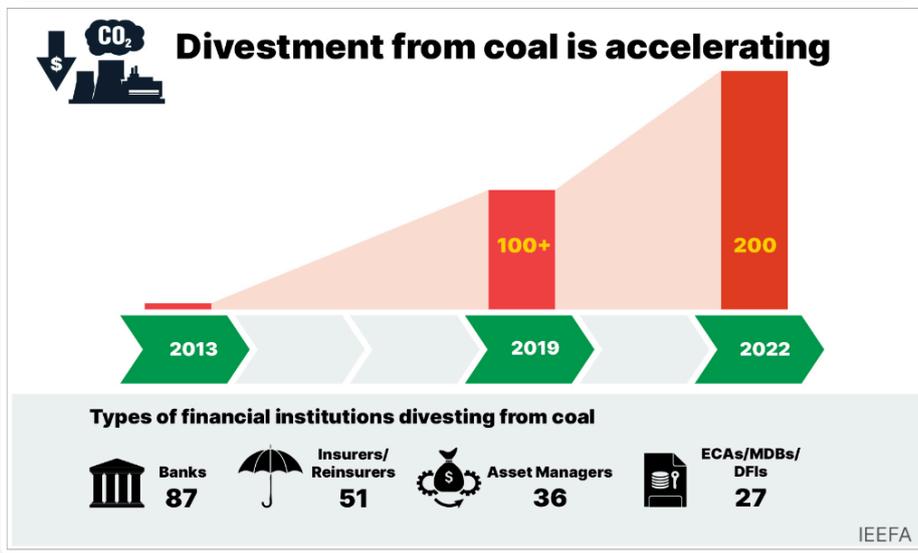
기후테크 투자 또한 침체기를 겪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기업들이 수 만명의 정리를 단행했으며, 기후 스타트업 또한 판매 부진과 자금 경색에 대비한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스타트업들의 은행이라 불렸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많은 스타트업들을 자금난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어두웠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기후투자 업계는 활기를 되찾았다.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회사 콩그루언트 벤처스(Congruent Ventures)가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고 2억7500만달러(약 3556억원) 모금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초기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테크 전문미디어 클라이밋 테크 VC(Climate Tech VC)는 2023년 상반기 기후 스타트업에 유입된 자금은 전년 대비 40% 줄었지만, 초기 투자인 시드펀딩(Seed Funding)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시장이 건전한 재조정을 거쳐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투자자들은 ESG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컨설팅기업 드비어그룹(DeVere Group)이 80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56%)의 투자자가 올해 ESG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드비어그룹은 ESG 지향 투자 급증은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재무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IEEFA) 또한 200개 이상의 주요 은행과 투자기관이 석탄 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114개, 아시아 태평양 53개, 북미 27개, 아프리카 6개, 남미 2개 금융기관이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IEEFA 홈페이지 / <https://ieefa.org/resources/200-and-counting-global-financial-institutions-are-exiting-coal>)

화석연료가 퇴출된 빈자리는 재생에너지가 채워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2023년 1조7400억달러(약 2279조520억원)를 넘어서는 1조8000억달러(약 2357조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영향 클 것… 먹고사는 문제로 기후투자 지연될 수도

2024년에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GDP의 42%, 전 세계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4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금융기업 알리안츠는 정치적 공방이 글로벌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과 이행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즉, 정치적 분열이 녹색금융협의체(NGFS)가 경고한 ‘전환 지연 시나리오(delayed transition scenario)’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 3>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주: NGFS

(출처: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한국은행)

전환 지연 시나리오란 NGFS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4가지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 2050년경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 시나리오가 지연될수록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증가될 수 있으며, 경제 전반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 저탄소 전환 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태풍, 폭염,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는 2023년 3월 보고서에서 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보험손실액은 1252억달러(약 164조2248억원)로 30년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SG 채권 시장은 둔화… 미국의 채권 공급은 정부가 주도할 것

글로벌 ESG 채권 시장도 2023 대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금융기업 ING는 ESG 채권 시장이 지난 7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붕괴, 물가상승, 고금리,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며 일부 부문에서는 발행액이 감소,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채권 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반(反) ESG 움직임 등 복잡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등 채권 발행인들은 2024년 대선 이후 정부 노선이 명확해 질때까지 채권 발행 여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 ING는 미국 채권 공급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주도할 것이며, 기업 발행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주주제안 건수 사상 최고, 지지율은 하락... 올해 선거 앞두고 반 ESG 행동주의 거세질 것

2023년 주주총회 시즌(proxy season) 주주제안은 83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제안 건수는 2021년 792건, 2022년 801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주주제안에 대한 평균 지지도는 2022년 31%에서 2023년 23%로 떨어졌다. 지배구조, 임원보수, 환경, 사회, 인적자본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하락한 것이다. ‘컨퍼런스 보드’는 주주제안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선별적 평가 및 접근 ▲기업들의 ESG 목표 달성 노력 및 정보 공개 강화 ▲기업의 비즈니스와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규범적인 주주제안 제시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주주제안 지지율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뱅가드는 미국 기업 ESG 주주제안 중 2%만 지지했으며, 블랙록은 전체 ESG 주주제안 중 약 7%만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22%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반(反) ESG 제안도 급증했다. 2022년 54건, 2023년 92건으로 반 ESG 제안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ESG 컨설팅기업 ESG게이지(ESGAUGE)는 “2024년에는 반 ESG 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단체들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협력한다. 대화 내용이 단체들 사이에서 인용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에는 ESG 관련 주주제안은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 및 관심도 증대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 통계에 따르면 S&P500 기업 6곳 중 1곳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있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세계 경제가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 주주행동주의 방어 글로벌 책임자 아비나시 메흐로트라(Avinash Mehrotra)는 낮은 변동성, 높은 기업 현금 보유량, 합리적인 부채 비율 등은 “주주행동주의 단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공방으로 반 ESG 행동주의 물결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험이 적은 신참 경영진들이 행동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 정보센터 - 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584&sel_year=2024&sel_month=01

미국 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IEEFA) - 200 and counting: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exiting coal

<https://ieefa.org/resources/200-and-counting-global-financial-institutions-are-exiting-coal>

알리안츠 - 지속가능한 투자: 2024년 5개 테마 - 실용주의

<https://www.allianzgi.com/en/insights/outlook-and-commentary/sustainable-investing-five-themes-for-2024>

IMG - Global ESG Bond Supply Outlook: Slowing down in 2024

<https://think.ing.com/articles/global-esg-bond-supply-outlook-2024-slowing-down>

드비어그룹 -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24년 ESG 중심 투자 확대

<https://www.devere-investment.com/esg-investing-is-on-the-rise-as-over-50-of-investors-look-to-increase-their-esg-investments-in-2024/>

컨퍼런스 보드 - Shareholder Activism: Beyond the Headlines

<https://www.conference-board.org/webcast/ondemand/shareholder-activism-headlines>

CNBC 기사

<https://www.cnbcm.com/video/2023/12/22/goldman-sachs-one-out-of-every-six-companies-in-the-sp-500-currently-has-an-activist-invested.html>

Gealth - 2024년 행동주의 전망: 보드룸 전투에 적합한 환경

<https://medium.com/@jcgblue/2024-activism-outlook-environment-ripe-for-board-room-battles-3888711fd6b6>